

제 14 장 사도 행전 Tape #8103

여러분이 지난 시간의 것을 기억할 것인데,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전도여행을 위하여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는 교회의 첫 번째 전도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것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사역을 시작했고, 그 뒤 유대로 흩어졌고,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으며, 이제 그들은 13 장에서 시작하여 땅의 맨 끝 지역으로 교회의 증거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맨 처음 지역으로 키프러스 섬으로 갔으며, 그 다음은 지금의 터키인,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갔던 것입니다.

1 절 “이고니움에서도 그 두 사람이 함께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그와 같이 말하니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큰 무리가 믿더라.” 자, 그들이 이고니움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그들이 해안의 평지를 떠나,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이고니움, 루스드라, 디베 지방의 고원지대로 방향을 돌렸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그는 거기에 이 사람들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는, 당신이 말할지도 모르지만, 진보된 문명, 위대한 로마의 권력이 있던 곳으로부터 떠나 작은 시골로 옮겨 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보통 로마의 중요한 지역에서 실행했던, 그런 통치가 경험되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저쪽이 ‘삭막한 동부’라고 한다면, 당신은 ‘거친 서부’와 같은 곳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영향과 지배에 관련되는 한, 직접적인 통치가 보다 더 없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고니움에 오자,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의 큰 무리가 믿었습니다.

2 절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그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하니,”

3 절 “그러므로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며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이적을 행하게 하시라 은혜의 말씀에 증거를 주시니라.” 떠나면서, ‘음, 당신이 알지만, 여기 주변이 거칠어지는구나!’ 라고 말하는 대신에, 반대자들이 선동되는 것은 내게 흥미로운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머물며, 그들이 남긴 반대자들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거기에 있었을 때, 이 3 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전했던 은혜의 말씀에 대한 주님의 증거를 주시려고,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이적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막 16:15)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시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복음서는 멈추었고, 그들은 말씀을 선포하려 곳곳으로 갔으며, 주님께서서는 말씀이 가는 곳에 표적으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놀라운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하여 행해졌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에, 오늘날 이것들을 만들어 내려는, 그리고 교회에 의해 만들어 보려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표적과 이적을 장려하는 듯한 그런 노력을 하는 실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표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려는 것이지요. 회심하지 않은 자들을 이끌어 낸다는 기대에서 표적과 이적을 아주 강조하는 한 운동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일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역자주, 초대교회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으며, 그들의 사역 중에 가장 주요 강조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표적과 이적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기 위한 단지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이고니움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가르치고 있었을 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이적을 행하게 하사 은혜의 말씀에 증거를 주셨던 것입니다.

4절 “그러나 그 도시의 무리가 나뉘어 일부는 유대인들의 편을 들고 일부는 사도들의 편을 들더니,”

5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치리자들과 함께 앙심을 품고 두 사람을 대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들때,” 6절 “그들이 알고 루가오니아의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주변 지역으로 도피하여,”

우리가 말했지만, 이곳은 실제로 로마 정부의 엄격한 지배 아래 있는 것은 아니었고, 민중의 지배가 더 강한 곳이었습니다. 사실상, 바울과 바나바를 제거하기 위해 함께 모여 린치를 가하려는 군중으로, 그들을 린치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모를 그들이 들었을 때, 내륙으로 더 깊이 들어간 더베와 루스드라로 달아났던 것입니다. 지금 이곳은 더베인데, 디모테의 고향으로 바울은 의심할 것도 없이 이 여행에서 디모테를 만났습니다.

7절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8절 “루스드라에 발이 허약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모테에서부터

블루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9절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고 걸으니라.” 지금 여기에 의심할 것 없이 바울에 의해 실행되고 있는

성령님의 은사의 조화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서의 대언의 은사와, 그가 가르치면서, 이 쪽에 앉은뱅이가 있는 사실을 알아 차렸으므로, 분별력의 은사 등의 조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열심히 그를 관찰하면서, 그를 응시하기 시작했고, 그는 그렇게 함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앉은뱅이에게

치료 받을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지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별력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고, 그는 이 사람이 치료 받고 싶은 믿음을 가졌다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큰 소리로,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고 말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때에 아마도 믿음의 은사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생소한 지역의 거리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에 듣는 한 군중이 있고, 한 번도 걸어 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대략 40 세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고 당신이 말했다면, 그것은 큰 믿음을 가져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뛰고 걸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시 기적의 은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절 “이에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며,” 신들이 여기에 있소! **12절 “바나바는 주피터 (쓰스)라 하고 바울은 주로 말하는 사람이므로 머큐리 (허메)라 하더라.”** 주피터와 머큐리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들을 말하는데, 이것의 라틴식 표기가 쓰스와 허메입니다. 자, 루가오니아에, 한 때 쓰스와 허메가 익명으로 사람을 방문하려고 내려왔다는 전설과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루가오니아를 통과하여 갔고, 누구도 그들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늙은 빌레몬과 그의 아내를 제외하고는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매우 비천하게 취급되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취급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익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지역을 저주했기 때문에, 빌레몬과 그 아내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설과 같은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만약 이 상황이 다시 쓰스와 허메라면, 알다시피, 우리가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그렇게 인식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둘 중에 바나바가 크기 때문에 쓰스라 했고, 사팔눈을 가지고 코가 구부러진 조금 작은 사람 바울을 허메라고 했습니다.

13절 “이에 그들의 도시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성문들에 이르러 사람들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코자 하니,” 신들이 여기에 있소! 그리고, 주피터의 제사장, 아마도 어떤 사람이 주피터의 신전으로 달려 나아가, 말하기를, 여보시오, 당신의 신들이 여기로 내려왔소! 그러니, 성문의 거리까지 황소를 끌고 내려오시오! 그리고는 바나바와 바울에게 희생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그들은 그들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고니움에서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았던 것도 아닌, 지금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신들처럼 경배하려는 사람들로 인하여 사역의 성공에 가장 큰 위협을 받게 된 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 성령님의 은사에 기대를 가지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길 원하고, 우리 모두는 영적인 은사들을 가지길 또한 원합니다. 바울이 고전 12:31 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장 좋은 은사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도 원하고, 더욱 기도의 응답을 보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계시되는 하나님의 능력 보기를 좋아합니다마는, 언제든지 이것들이 일어날 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에 먼저 눈이 가는 경향이 있고, 이 도구를 높이려 하고, 이 도구에 먼저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당신이 앞의 것을 기억하겠지만 행 3:1-11 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기도시간에 성전으로 가는데, 거기에 앓은뱅이가 있었습니다. 약 40 세쯤 되었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그는 수년 동안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에 있었다는 평범한 모습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구제를 바랐으나,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고만 말했고, 손을 내민 것이 전부였지요. 베드로는,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라고 말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네 발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며, 그를 잡아 일으켜 세우자, 그는 곧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큰 파란이 일어났습니다.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베드로 주변에 모여들었고, 베드로를 껴안은 이 앓은뱅이는 경충경충 뛰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가 앓은뱅이가 아니더냐? 라고 물었고, 다른 사람들은, 이가 그 같다고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음, 그가 어떻게 해서 걷게 된 거야? 우리는 잘 몰라! 그러자, 군중을 바라보고 있던 베드로가 말하기를, 부형들과 형제들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에 놀랍게 여기느냐? 왜 이 앓은뱅이에게 행한 일이 우리의 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보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너희들 앞에 온전히 서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통의 경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거나, 초자연적인 표적들을 그 분의 사역으로 개인에게 적용하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에 먼저 눈이 가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데, 마치 그 도구를 영화롭게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마 5:16),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위험은 바로 그 영광을 취하려는데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데, 말하기를, 음, 내가 쓰스이다! 라는 생각을 그들에게 하게 하여, 나에게 그 때 기회를 주시면, 내가 그들을 예수님계로 이끌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숭배와 추종이 있는 일종의 구원자로 즐기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사역은 끝장이 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 분의 영광을 사람과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그

래서 주피터의 제사장이 그들에게 희생을 드리려고 준비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되고 있던 일을 인식했을 때, 돌연히 그들은 제사장을 보았고, 황소도 보았으며, 그들은 그것들을 함께 올려놓았고, 그들은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4 절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가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사람들 가운데로 달려 들어가 소리 질러,” 15 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사람의 추종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노트하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것들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이 헛된 일들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고, 당신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그 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로부터 돌아서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열정을 혹은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또한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어렵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엘리야에 대하여 말하는 구약성경을 읽을 때(왕상 18:20-40), 하늘로부터 불이 내린 것을 읽고, 엘리야가 행한 기적들을 읽으면, 엘리야가 일종의 초인적인 성도였다고 믿지 않습니까? 내 말은 이 사람이 가졌던 능력을 본다면 그렇지 않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약 5:17).

바울과 바울의 사역과 하나님의 종으로서 업적을 보면, 그 사람에게 말하는 바울에 대해서 당신이 읽어보면, 네 발로 일어서라! 했고,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이 그 장애로 태어난 38 세가 된 이 앓은뱅이가 당신이 보는 대로 걸으며 뛰기도 했으니, 당신이 말하는 대로, 바울은 초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니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말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통 사람을 쓰시는데, 자신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시기 원하시지만, 당신은,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예!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사람들은 아무튼 그들이 사용될 수 없었다는 것을 항상 느낀 사람들이라는 것에 참 흥미가 있습니다.

모세를 파라오에게 가도록 하기 위해, 그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통과하셔야만 했던 일을 보세요(출 3 장). 주님,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말을 더듬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음, 그래! 그렇다면 말을 잘 하는 아론을 너에게 보내주마! 그러나, 주님, 그들이 나를 그들에게 보낸 자로 믿지 않을 텐데요. 음,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예, 이 오래된 지팡이올시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니, 그것은 뱀이 되었고, 꼬리를 집어라! 하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너와 함께 행할 것이다! 오 주님, 왜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렘 1:5),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히 구별했으며, 너를 여러 민족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주님, 농담하십니까? 나는 이제 십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가 내 말을 듣겠나이까? 주께서 알다시피, 당신이 사용하셨던 이 민족은 항상 느끼고 있었지만,,, 음, 주님! 당신은 나를 주관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오셔서(삿 6:11), 그는 자기 아버지의 밭을 타작하며, 동굴에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 그 분께서, 너 강한 용사여! 이 강력한 힘으로 가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말하기를, 당신의 서류를 조사해 보세요, 주님. 아마도 틀린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을 잘못 알고 오셨습니다! 나는 가장 작은 지파에서 낳고, 우리 아버지는 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아버지의 가족 중에 또한 가장 작은 집입니다. 당신은 허탕을 치신 것이군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을 사용하셨을까? 라는 놀라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그 분께 자신을 온전히 양보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행하셨을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양보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은 여전히 보아야만 한다고 한 때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무디는 그것을 듣고 말하기를,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드와트 무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봅니다. 그러나 그가 온전히 양보되지 못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나는 믿기를,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양보되는 사람을 통하여 할 수 있을 것을 세상은 여전히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도 성정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단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헛된 것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우리가 왔다는 것이지요. 이 일들은 헛된 것이오! 거짓 신들에게 경배하는 것은 헛된 것이오. 여기에 진실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시며, 그 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분이 바로 당신이 경배할 유일한 분이고, 우리가 그 분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16 절 **“하나님께서 지나간 때에는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 길을 가게 하셨으나,”** 17 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하여 증거를 남겨 두지 아니하신 것은 아니니 곧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셨느니라 하고,”**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진실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의 선함,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기자는 시 19:1-2 에서,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 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언어입니다. 그 분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곳에는 말씀과 언어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기를(롬 1:19-20), 이방인조차도 자연에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인 하나님의 계시로 가려진 것이고, 우주를 창조하신 진실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분이시며, 열매 맺는 계절을 주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8 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그 사람들을 말려 자기들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니라.”** 19 절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그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곳이며, 해안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로 바울을 쳐서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끌어내니라.”** 군중의 경배가 얼마나 변하기 쉬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군중의 경배를 받기 위하여 그들의 삶을 내어 줍니까? 바울이 고전 9:25 에서, 올림픽이나 레슬링 경기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말하기를, 그들은 조련되었고, 그들의 몸을 훈련하였으며, 모든 종류의 희생을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하여 그것을 했고, 그래서, 올림픽에

참가했으며, 세계 우승자로 월계수 화환을 머리에 쓰고 국가가 연주되는 가운데 재판관 앞에 서기 위하여 그 올림픽의 레슬링 시합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모든 희생에 대해 말할 것이고, 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몸을 훈련한 것들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거기에 서있으며, 가장 위대한 자로 박수갈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 군중은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당신은 훈련해야 할 것인데, 타격 연습을 위한 새장과 같은 우리에서 여러 시간을 보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타격 코치 등 기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눈을 그 공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서 공원 밖으로 그것을 쳐내야만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해의 홈런 타자가 될 것이고, 가장 많은 타점을 기록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한 주나 두 주일쯤 부진에 빠지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타석에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야유하고, 고함지르고, 휘파람을 불어 대고, 바닥을 발로 동동 구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그들은 홈런을 찾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두 주일간 안타도 없이 부진이 계속되면, 그들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이 타석에 다가가면, 모든 사람들이 야유의 소리를 외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영광은 얼마나 변하기 쉬운지 모릅니다! 여기 그들은 희생을 제공하여 다른 신들에게 그것들을 바칠 준비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돌로 맞아 도시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가 죽은 줄로만 알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일이 있은 후 14년 뒤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 두 번째 서신을 썼습니다. 고후 12:2-10에서,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림을 받은 자인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노라.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림을 받아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이 말들을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 내가 들은 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묘사할 수 있는 고안되고 창조된 말이 없기 때문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그것을 묘사하려고 하는 것은 범죄행위나 다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가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았던 때를 경험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죽은 것으로 간주하여 도시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울은, 내가 죽었는지, 또는 그렇지 아니한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로 채어 올림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죽었을 것이고, 아마도 하늘로 올려갔을 것입니다. 잘 모르지만, 그가 살아서 단지 환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그가 죽었다는 것이었으나, 바울은 정확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수 없으나, 내가 아는 것은 영광스러웠던 셋째 하늘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계시의 풍성함 때문에, 이 하늘의 방문, 하늘 속으로 방문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는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자기가 받았던 계시의 풍성함 때문에 자고하지 않도록 사탄의 사자를 주사 자신을 치게 할,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육체의 가시는 돌로 맞은 결과였을 것입니다. 다시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할 어떤 상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죽은 것으로 생각되어 그들은 떠나고, 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20절**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가 일어나 도시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은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튿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 그는 도시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곳은 돌로 맞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그 다음 날 떠났습니다.

21 절 “그 도시에서” (더베를 말합니다.)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

디옥으로 돌아가서,” 22 절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 아래 거하라 권면하며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란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그들은 바울이 치룬 일련의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들은, 이보시오, 이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거친 길입니다. 많은 환란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6:13).

23 절 “그들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의 터키인, 소아시아 지역 속으로의 첫 번째 침투였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24 절 “비시디아를 두루 지나서” (해안으로 돌아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25 절 “말씀을 벱가에서 선포하고 앓달리아로 내려가서,” 처음 도착한 곳으로부터와 떠났던 곳으로부터 향구입니다. 26 절 “거기서 배타고 안디옥을 향해 떠나니”(시리아 안디옥, 그들이 이 전도여행을 시작했던 곳으로부터, 그들이 성취했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권함을 받던 곳입니다.) “이곳은 이 두 사람이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을 맡겼던 곳이라.” 그들은 첫 번째 선교여행을 완수했습니다.

27 절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 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28 절 “거기서” (안디옥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무니라.” 그들의 고향 교회로 돌아와서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선교사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사용하셨는지를 나눕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돌아와서,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삶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항상 흥분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되었던 것처럼, 그 초대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는 것은 항상 스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장에서 첫 교회 회의를 보게 될 것이며, 첫 교회 회의를 소집한 이유와 풀어져야 할 문제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 읽으세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므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는 사람들, 성령님에 의해 기쁨 부음을 받았던 사도들을 통하여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기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배울 수 있는 일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훈계에 감사하고, 격려와 경고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당신께서 단순하고, 보통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보호에 있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높은 존경에 붙들려 아침을 받음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우리가 바울과 베드로처럼, 위대한 창조주이신 주님, 당신에게 돌아서게 하소서. 지금, 주님, 새로운 주간을 임하여 있으니 당신의 강함이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소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받았던 은혜로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당신의 모든 목적을 성취하는데 사용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에, 당신의

사역을 행하는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인도해 주소서, 지도해 주소서, 능력을 부어주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